

윤석천의 '우리와 경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다시 세워야

움직임은 살아 있음을 뜻한다. 반대로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물조차도 움직임 없이 고여 있으면 썩는다. 죽는 것이다. 살아 있음은 이동성 즉,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가 죽어가고 있다. 계층 간 움직임이 정체를 넘어 막히고 있다. 계층 간에 성벽이 존재하고 그것을 타 넘을 수 있는 사다리마저 치워지고 있다.

물러받은 재산이 없는 서민이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일자리'를 얻어 열심히 사는 길뿐이다. 지금껏 그래왔다. 한데, 이 공식이 깨지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게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 노동자의 거의 절반에 가깝다.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반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계층 상승을 꿈꾼다는 것 자체가 '사치'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격차가 심하고, 영세자영업자도 유난히 많아 계층 이동은 나날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른바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이 있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건 '교육'이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의 교육은 '계층 상승 사다리'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계층 대물림의 통로' 혹은 '계층 고착화의 도구'가 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세대 간 계층 대물림 현상이 최근 들어 다시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자식 간 학력 상관계수와 사회경제적 지위 상관계수 모두 다시 높아지고 있다.

다시 말해, 부모의 학력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식의 학력과 사회경제적 지위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역으로, 부모의 학력과 지위가 낮을수록 자식의 그것들도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 학력이나 사회경제적 지위마저도 물리적으로 전염처럼 상속되고 있는 것이다.

계층 상승 혹은 이동의 통로가 막히고 있다. 좋은 일자리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교육 기회마저 불평등해지고 있다. 계층 상승 혹은 이동이 불가능한 사회가 중세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부모의 지위나 계층에 의해 자손의 삶이 결정되던 중세 시대와 부모의 재산과 교육 정도에 의해 자손의 삶이 결정되는 오늘의 시대가 다른 점은 없다. 물결이 흘러 있어야 물은 썩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계층 이동의 통로를 활짝 열어줘야 사회는 병들지 않는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 사회의 '이동성'을 경고하는 두 개의 리포트가 발표됐다. 그것도 진보 성향의 연구소가 아닌 국책기관에서 나왔다. 이례적이다. 그만큼 한국 사회의 병이 깊어가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지난 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소득 분배 변화와 정책 과제'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계층 상승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빈곤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동시에 최상위 고소득층으로의 소득 쏠림 현상도 계속 심화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부익부빈익빈'의 쓸쓸한 현실을 확인시켜준다.

동시에 고령화 속도마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노인들이 노동시장을 기웃거리고 있지만 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50%에 이른 노인빈곤율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 연령층에 걸쳐 계층 상승의 사다리 자체를 아예 오를 수조차 없는 이들이 그야말로 폭풍하고 있다.

계층 상승 혹은 이동의 통로가 막히고 있다. 좋은 일자리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교육 기회

<경제평론가>

종교칼럼

싱크홀 현상과 우리 사회



김성덕 화정교회 목사

리우는 정수기의 필터는 땅의 구조를 모방해 만든 것입니다. 필터 위에 물을 부으면 물이 미세한 구멍을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걸러져 깨끗한 물이 되어 떨어집니다. 땅에도 그런 식으로 물이 스며들게 되고, 깊이 들어갈수록 깨끗한 물이 됩니다. 그러다가 단단한 암석층을 만나면 더 이상 스며들지 못하고 물이 고이게 되는데, 그것이 지하수입니다.

하고 버티게 하는 삶의 지하수가 채워져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삶의 지하수가 빠져나가서 공간이 생기면 나는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성완총리스트로 인하여 정치계에서 여러 사람의 이름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더 빨리 성장하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정치인은 정직하지 못한 돈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매일 방송되는 뉴스와 발행되는 신문을 보면 범죄 소식은 끊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마음의 양심을 찌르는 죄를 짓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심지어는 지은 죄를 비밀로 감추어 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왜 사람이 죄와 유혹으로부터 무너지나요? 그것은 내 심령 속에 도덕과 윤리의 지하수가 고갈되어 텅 빈 공간이 생기고, 나를 버티게 할 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사람들의 심령과 사회 속에 믿음을 채워야 합니다. 왜 부부와 연인들이 헤어지는 아픔을 경험하나요?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이 비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랑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우리나리가 바르고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국민이 든든함과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싱크홀(sinkhole) 현상이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2월 설 연휴 중에는 서울 용산역 앞 주상복합 건물 공사장 근처에서 도로가 갑자기 꺼지면서 행인 2명이 땅에 생긴 구멍 3미터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싱크홀은 주변 건물을 쓰러뜨리거나 물체를 구멍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싱크홀은 왜 생겨나는 걸까요? 자연에서 나타나는 싱크홀의 원인은 대부분 지하수입니다. 땅에 떨어진 빗방울은 땅에 난 무수히 많은 작은 구멍들을 통해서 금세 스며듭니다. 물을 깨끗이 걸

리는 동안 내 창자와 내 간, 심장과 콩팥은 무력무력 자라났다. 나는 어머니가 해 주는 음식과 함께 그 재료에 난 칼자국도 함께 삼켰다.' 배우들의 책 읽는 소리에 객석에선 흐느끼는 소리가 이어졌다. 최근 남독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EBS FM 라디오는 '문지애의 책으로 행복한 12시' 등 하루 16시간 책과 음악이 어우러진 프로그램 중 읽을 수 없는 작품이 있다. 2007년 작 '칼자국'이다. 그 해 이호석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했던 '칼자국'은 칼국수집 '맛'의 배우, 우리 문학을 읽다' 오디오북 시리즈 11권이 나왔다. 좋아하는 배우 남명일이 읽은 '일류', 송승환이 낭독한 이상의 '날개' 등을 만날 수 있다. 올 해 완간되는 100권 중에는 '무진기행' 등 개인적으로 기다리던 책도 많다. 강부자가 낭독한 '백지 아다다' 등 11편은 유튜브를 통해 미리 들어볼 수 있다. 한편의 연극을 보는 듯한, 남독의 매력에 빠져 보시라. 비용(다운로드)은 단 990원이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기고

중소기업들의 노후대책



정양수 신용보증기금 광주중앙지점장

라는 조항이 들어 있어 그 당시에도 지금의 해상보험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보험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은 약 120여년전 대조선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증권을 통해 알려진 '소(牛)보험'이라고 한다. 농경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인 소가 보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 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보험료는 소의 크기와 관계없이 연간 1냥으로 동일하였는데 소가 죽으면 큰소는 100냥, 중간소는 70냥, 작은소는 40냥을 보상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소보험은 시행 100여일만에 폐지되고 말았다. '독립신문'에 따르면 이 완용의 형이자 당시 농상공대신인 이윤용이 도입한 소보험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는 아예 시장에서 매매할 수 없도록 제도와 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제도가 시행되지 얼마되지 않아 폐지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보험의 유래를 소(牛)보험부터 살펴보면 우리나라 보험의 역사도 근현대사와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다. 기업도 생명체와 같아서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는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창업 100년이 넘는 장수기업은 7개에 불과하며,

약 320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평균수령은 12.3년이라고 한다. 창업후 5년이상 생존확률은 약 24%에 불과하다고 한다.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 의하면 신용보증을 이용하다 도산하는 기업들의 부실사유 중 판매부진과 매출채권 회수부진이 약 73%를 차지하는 등 매출 즉 '판매'와 관련된 사유가 단연 1순위를 차지한다고 한다. 기업들의 경제조건들이 과거에 비해 현격하게 위주조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올'의 위치에서 어쩔수 없이 경쟁적으로 저가 납품 내지는 외상판매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보면 판매대금에 대한 회수가 100%담보되어 마음 놓고 외상거래를 할 수 있다면 기업의 노후대책은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노후 및 부실을 대비해 어떠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을까? 생명보험이나 연금과 같은 노후대비 안전판은 없는 것일까? 필자가 근무하는 신용보증기금에는 국내 유일한 공적보험제도인 '매출채권보험'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거래처에서 외상판매하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보상해주는 공적보장제도다. 현재 5조 1000억원의

보험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인수되어 활발하게 운용 중에 있다. 2014년 기준 전체적인 보증부실율이 약 4.8%에 달한 반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의 부실율은 7분의 1 수준인 0.7%의 부실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매출채권에 대한 보험 가입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다. 제품 및 가격경쟁력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보면 외상대금의 안전한 회수비책인 매출채권에 대한 보험은 어찌보면 우리가 어릴적 막연히 무서워 했던 불(火)주사처럼 삶지만 맞아야만 발달 없이 살 수 있는 예방주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신용보증기금 광주신용보험센터에서도 보험에 가입하면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진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현재 3500억원의 보험이 인수되어 활발하게 운용 중에 있다. 또한 과거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와 간편한 신청절차로 신속하게 가입이 가능한 '간편보험' 등을 신상품으로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외상거래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번 기회에 판매위험 보장을 통해 든든한 노후 대책을 마련해 보길 기원해 본다.

社說

인사체계 뒤흔든 계약직 공무원 불법 채용

전남 시·군의 계약직 공무원 채용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어 전남도가 감사를 발이고 있다. 계약직이 자치단체장의 선거 공신이나 친인척, 고위공무원의 자녀로 채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시대나 조선시대 때 고위관료나 공신의 친인척이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리로 등용되던 '음서제'의 현대판이라는 비난까지 나온다.

대나 다름없었다. 때문에 특정인을 뽑기 위해 자리를 새로 만들고 시험 등 공적 절차는 아예 없으며, 그나마 응모 자격이나 합격 기준을 맘대로 바꾸는 등 인사사리가 곳곳에서 자행돼 왔다. 그래서인지 계약직은 증가 추세다. 광양시에는 올 들어 계약직과 청원경찰 수가 25명이나 늘었다. 전남도와 시·군의 개방형 및 임기제 공무원 수가 2010년 말 164명에서 지난해 말 188명으로 24명이나 증가했다.

전남도는 최근 계약직 및 일용직 채용의 문제점이 드러나 광양시와 무안군, 고흥군, 곡성군 등 4개 시·군을 감사하고 6개 시·군도 감사를 발일 계획이라고 한다. 도는 계약직을 공개 채용하지 않고 실·과장 추천이나 인사부서에서 이력서만 받아 면접을 하는 등 선발절차가 투명하지 못한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계약직 불·편법 채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특정지역만의 경우도 아니다. 계약직 선발은 기초단체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관리 감독의 사각지

에 놓여 있다. 순천지역 상공인들은 아웃렛과 대형 마트의 브랜드가 인근 상권과 중복돼 골목상권 붕괴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형 아웃렛 입점은 그동안 전남지역 관광 한계로 지적돼 왔던 관광형 쇼핑몰 부재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은 무안 남악과 목포 하당, 순천 해룡, 광양, 나주 등 5곳에 달한다. 복합쇼핑몰인 GS리테일은 무안 남악신도시에 대형 마트와 아웃렛 건립을 위해 다음달 착공할 예정이며 목포 하당에는 홈플러스가 올 연말 대형 마트 건설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지역 상권 붕괴를 우려하는 소상공인들은 비상대책위를 꾸려 입점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광양지역도 LF패션이 250여 개의 의류 매장과 영화관 등이 들어서는 아웃렛을 이달 중 착공하게 되며 순천 해룡면 성산역 부근에는 의류 아웃렛인 순천만 쇼핑몰이, 나주 노안에는 신세계사이먼이 대형 아웃렛을 짓기 위해 부지 매

입점 추진 대형아웃렛 지역과 상생 나서라

전남지역 곳곳에 대형 아웃렛이 입점을 추진하면서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상공인들은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게 되면 지역 내 상권이 초도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입에 나서고 있다. 순천지역 상공인들은 아웃렛과 대형 마트의 브랜드가 인근 상권과 중복돼 골목상권 붕괴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형 아웃렛 입점은 그동안 전남지역 관광 한계로 지적돼 왔던 관광형 쇼핑몰 부재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은 무안 남악과 목포 하당, 순천 해룡, 광양, 나주 등 5곳에 달한다. 복합쇼핑몰인 GS리테일은 무안 남악신도시에 대형 마트와 아웃렛 건립을 위해 다음달 착공할 예정이며 목포 하당에는 홈플러스가 올 연말 대형 마트 건설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지역 상권 붕괴를 우려하는 소상공인들은 비상대책위를 꾸려 입점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광양지역도 LF패션이 250여 개의 의류 매장과 영화관 등이 들어서는 아웃렛을 이달 중 착공하게 되며 순천 해룡면 성산역 부근에는 의류 아웃렛인 순천만 쇼핑몰이, 나주 노안에는 신세계사이먼이 대형 아웃렛을 짓기 위해 부지 매

한제 입점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은 무안 남악과 목포 하당, 순천 해룡, 광양, 나주 등 5곳에 달한다. 복합쇼핑몰인 GS리테일은 무안 남악신도시에 대형 마트와 아웃렛 건립을 위해 다음달 착공할 예정이며 목포 하당에는 홈플러스가 올 연말 대형 마트 건설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지역 상권 붕괴를 우려하는 소상공인들은 비상대책위를 꾸려 입점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광양지역도 LF패션이 250여 개의 의류 매장과 영화관 등이 들어서는 아웃렛을 이달 중 착공하게 되며 순천 해룡면 성산역 부근에는 의류 아웃렛인 순천만 쇼핑몰이, 나주 노안에는 신세계사이먼이 대형 아웃렛을 짓기 위해 부지 매

無等鼓

2005년 문단의 최대 화제는 소설가 김애란이었다. 그해 38회 한국일보문학상 최연소 수상자였던 그녀는 당시 1980년대 생 최초의 문학상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수상작은 단편 '달려라, 아비'. 이후 그녀는 이상문학상, 김유정문학상 등을 수상했고 첫 장편 소설 '두근 두근 내인생'은 강동원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읽는 맛이 남다른 김씨의 단편 소설 중 읽을 수 없는 작품이 있다. 2007년 작 '칼자국'이다. 그 해 이호석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했던 '칼자국'은 칼국수집 '맛'의 배우, 우리 문학을 읽다' 오디오북 시리즈 11권이 나왔다. 좋아하는 배우 남명일이 읽은 '일류', 송승환이 낭독한 이상의 '날개' 등을 만날 수 있다. 올 해 완간되는 100권 중에는 '무진기행' 등 개인적으로 기다리던 책도 많다. 강부자가 낭독한 '백지 아다다' 등 11편은 유튜브를 통해 미리 들어볼 수 있다. 한편의 연극을 보는 듯한, 남독의 매력에 빠져 보시라. 비용(다운로드)은 단 990원이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남독의 힘

이 작품은 책장을 넘기며 '눈'으로 읽을 뿐 아니라, '귀'로도 들었다. 한 극장에서 진행된 '임채남독극장'을 통해서였다. 배우들은 책의 대목 대목을 천천히 읽어내갔고, 한쪽에서는 진짜 칼국수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칼 하나를 25년 넘게 써 왔다. 얼추 내 나이와 비슷한 세월이다. 썰고, 가르고, 다지는 동안 칼은 종이처럼 얇아졌다. 썰고, 삼키고, 우물거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국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 제 크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